

괴담을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핵오염수공세는 괴담정치이다》, 《괴담괴해를 막겠다》, 《소금사재기(값이 오를것이라고 보고 필요이상 사들이는것)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를 이렇게 《괴담》이라고 하는자들이 있다.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이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것이 과연 《괴담》이겠는가.

지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섬나라것들의 망동은 일본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있다.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 《경제적비용만 고려해 해양에 방출하려는것은 다른 나라와 전 인류에 위협을 전가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있다.

핵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은 《죽음의 대양》으로 될것이며 1차적피해는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남조선이 당

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섬나라것들의 반인륜적인 핵오염수방류행동을 결사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서울행동》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행동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저들의 망동을 단죄

배격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모독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진짜 괴담을 만들어 내뿜는 장본인은 윤석열역적패당이다.

《30년동안 방사능이 축적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신할수 있다》,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자연의 힘으로 정화된다》, 《핵오염수를 하루 3기 먹으면 먹겠다》...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

상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략동에 광분하다 못해 이제는 핵오염수까지 방류하려고 미쳐달리는 섬나라것들을 두고 어제날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협력의 동반자》로 되었다고 괴담을 늘어놓은것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괴담과 궤변을 내뿜으며 민중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거리들이야말로 남조선 각계층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 재난의 모근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동맹국회》, 《전쟁국회》

남조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과 혐오감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있는 여야당대표들의 연설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환영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야당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정권》은 집권 1년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정권》, 갑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갑수정정권》, 《국민포기정권》이 되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광란적인 검찰강제정치, 대내외정책실패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편 여당대표는 무려 50여분이나 괴담을 늘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공격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을 《괴담》, 《가짜뉴스》, 무분별한 선동으로 《국정》발목잡기에 매달리는 세력으로 몰아댔다.

여야당대표는것들이 이처럼 비린질을 돋구며 서로 물고뜯자 그 아래것들도 덩달아 악정을 돋구며 상대방을 몰아댔다.

《국민의 힘》것들은 야당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내용이 잘못되었다, 현 위기는 이진 《정부》가 초래한것이라고 고아대며 항의하거나 헛기침을 하면서 방해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더불어민주당》것들 역시 여당대표는자가 연락에 나오자 《거짓말하지 말라》, 《대통령실》의 영부새, 《창피한줄 알고 퇴진하라》, 《여기가 일본국회냐》 등으로 야유하고 조소하였다.

여야당것들의 이러한 해괴한 추태가 그대로 실황중계되고 이것을 본 각계층에서는 《저런게 《국회》냐》, 《저런게 정치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회의장 방청

석에는 《국회》견학을 왔던 120여명의 초등학교학생들이 앉아있었다고 한다.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속에서는 이들앞에서 저들이 놀아내는 꼴이 너무도 창피하여 《방청석에 초등학교생들도 있지 않나. 그들앞에서 레의도 없고 미덕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부끄러웠다》는 개란의 소리도 울려나왔다.

저들의 정략적목적 위해 민심이 요구하는 법안처리에는 뒤전에 밀어붙이고 《국회》를 고성과 주먹질만 오가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전쟁국회》로 만들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정치시정배열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이 정치권에 대해 기대할것도 지켜볼것도 없다고 비난하며 침을 뱉고있는것이다.

《《국회》안은 전쟁터처럼 뜨겁고 반대로 《국회》박민심은 싸늘해지고있다》, 《여야가 《생물이불신임》을 받는 상황》, 바로 이것이 당리당략을 위해 날마다 싸움질만 벌리는 남조선의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우리 바다도 백년, 천년 우리 후손들 삶의 터전이다. 일본이 총칼 들고 조선반도를 침범한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폐수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침공이다.

더 한심한것은 일본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부)다. 윤석열(정부)는 친일(정부)인가 아니면 일본내각 하수인(정권)인가. 《일본의 법적인 핵오염수 방류행동을 비호두둔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주민이 터친 분노의 목소리》

— 《윤석열(정부)의 죄악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가히 망국적이다. 그 무모함도 문제이지만 검찰독재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적 변변함에 예설되었던 전두환, 로태우시절의 기억마저 새삼 돌아온다.》(윤석열역적패당의 죄악을 까발린 남조선인민들의 기사중에서)

—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말살한 순사는 해방이 되어 조 선총독을 끄집어내려고야 사 라졌다. 마찬가지로 나날이 포 악해지는 독재검찰의 폭력도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갈장 될수 있다.》(윤석열역적패당의 검찰정치를 단죄규탄한 남조선인민들의 기사중에서)

남조선에서 얼마전 자신이 낳은 두명의 아이를 련이어 죽인 30대의 여성이 체포되었다.

녀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을 랑동기에 보관해왔으며 첫아이를 살해한 때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라는자는 뒤늦게야 《현재로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해 보호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영미의 정보를 입수해 추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니 하고 횡성수설했다고 한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한들 피어날지도 못한채 비명

에 간 아이들의 에어린 령혼을 어떻게 달랠수 있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후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2 2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이 태어

나서 부모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태어난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고 하니 수년간이나 아이를 죽인 사실을 누구도 몰랐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런 비극은 비밀비재하다고 한다.

태어난지 한달정도밖에 안되는 자기 자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 태

어난지 70여일밖에 안되는 자식을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실도 있다.

2021년에도 8살 난 딸을 살해한 여성이 구속되었는데 그 아이도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런 비극적이면서도 폐륜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겠는가.

그 바탕에는 사회에 범람하는 폐륜폐덕과 함께 돈문제가 깔려 있었다.

두명의 자식을 죽인 녀성은 이미 세 자식이 있는데다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는 때에 또다시 아이를 낳게 되자 이런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남조선사회에 인간저리성이 마비되고 폐륜폐덕이 성행하는 말 세기적풍조를 더욱 만연시키고있는 장본인이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씹는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성폭력문제, 《내 집마련》 등 녀성들이

지지 않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과 무능력, 극심한 경제위기 등으로 200만여명의 주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살률, 출생저하률, 사고발생률 등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있으며 사회적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남조선이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있다는 개탄이 터져나 오고있는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라》,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남조선민심의 이 절규는 역적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행동의 구호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윤석열〈정권〉과 한하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다》

—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을 퇴진을 위한 투쟁 광범히 전개 —

남조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민주로총》과 《농민회총련맹》, 《여성농민회총련맹》, 《빈민해방실천전대》 그리고 녀성, 청년, 종교단체 등 3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6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퇴진투쟁은 이미전부터 시작된 투쟁이다.

《민주로총》은 《윤석열퇴진》을 총과업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건설로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정권)은 이제 《핵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며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해외에 나가지만 하면 걱정거리를 한아름 안고오는 《정권》이라고 하면서 《취임 1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1년

간의 약화와 부족함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7월 15일 총과업의 마지막날 《법국민대회》를 열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퇴진투쟁을 만들어 갈것》이라고 밝히었다.

《한국로총》, 《금속로동조합련맹》도 이에 합세하였다.

《쌀값보장》을 요구한 농민단체들은 이미전부터 《윤석열퇴진》 구호를 들었다.

《농민회총련맹》 의장은 《윤석열퇴진은 농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농민의 분노가 끝이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로점상들과 도시빈민들도 지난 《6.13로점상대회》를 통해 《윤석열퇴진》 결의를 다지였다.

《빈민해방실천전대》 공동대표는 《전세사기와 대출,

강릉전세로 많은 국민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자영업자는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고 하면서 《도시빈민이 2천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떡고물만 먹고 살아라》, 《저항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행태》라고 하면서 《도시빈민도 윤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할것》이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서울의 로점상회원들은 자기들의 로점에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투기반대》의 구호를 게시하고 방류반대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

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 저지투쟁》, 《로동탄압저

지, 《민주로총》 총과업련대지지》, 《공안탄압, 집회시위금지 등 민주주의파괴행동 저지》, 《골육외교중단, 반전평화투쟁》, 《천재발, 사회공공성파괴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등 6개의 당면현안을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단체들과 련대투쟁을 이어가며 3일부터 《대통령실》앞에서 윤석

열퇴진선포기자회견을 가지며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 법국민대회》를 열어 하반기 총선거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은 민중에게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었다. 《빈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과 한하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